



프로축구 K리그1 선수를 질주 중인 FC서울(왼쪽)이 이번에는 '강릉 불패' 강원FC와 25일 오후 2시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강원 '강릉 불패'도 깨주마... 칼 가는 서울

여러 악연까지 끊어내며 프로축구 K리그1 선수를 질주 중인 FC서울이 이번에는 '강릉 불패' 강원FC와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서울은 25일 오후 2시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강원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9라운드까지 서울은 승점 22(승 1무 1패)를 쌓아 1위를 달리고, 강원은 승점 13(승 4무 2패)으로 3위에 올라 있다.

두 팀 모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전에서 탈락했으나 K리그에 집중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동 감독 부임 3년 차를 맞은 서울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우승'을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세가 무섭다.

서울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개막 4연승의 신바람을 내는 등 7경기 연속 무패 행진(6승 1무)을 벌이다 대전하나시티즌과의 8라운드에서 0-1로 저 시즌 첫 패배를 당했으나 이후 부천FC를 3-0으로 완파하며 곧바로 분위기를 추스렸다.

클리탈라(5골), 송민규(3골)를 비롯해 9명의 선수가 19득점을 합작한 서울은 현재

강원, 홈 강릉서 23경기째 무패 전복 홈 무승 악연 끊어낸 서울 이번엔 강릉 징크스 깨기 작심 김기동 감독 "2경기 무승 설욕"

은 2024년 7월 7일 광주FC전 2-0 승리를 시작으로 강릉하이원아레나(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3경기(12승 11무)에서 패배가 없다.

지난해 강릉 홈 개막전인 6월 21일 대구 FC전(3-0 승)부터는 구단 기록인 홈 14경기 연속 무패(5승 9무) 중이다. 모두 강릉에서 치른 경기다.

강원의 마지막 홈 경기 패배는 지난해 6월 13일 춘천삼삼포스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전북전에서 0-3으로 진 것이다.

서울도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 강릉에서 강원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졌다. 지난해 3월 1-0 승리는 춘천에서 거둔 것이다.

강원은 강릉에서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올 시즌에도 강릉에서 치른 K리그1 4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 중인데 모두 1-1로 비긴 세 경기 중 두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전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강원의 흐름이 좋다. 강원은 올 시즌 개막 이후 K리그1 5경기(3무 2패)에 ACLE 16강전 2경기(1무 1패)까지 포함하면 7경기까지 승리가 없어 팬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6라운드에서 광주를 3-0으로 꺾

어 시즌 첫 승리를 거두는 등 이달 들어 치른 4경기에서는 3승 1무로 완벽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순위도 3위까지 끌어올렸다.

5라운드까지 3득점 6실점을 기록했던 강원은 이후 4경기에서는 9득점 1실점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역시 강릉에서 치른 광주전에서는 상대에 슈팅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강원의 '4월 무패' 배경으로는 정경호 감독이 전술 변화를 꾀 수 있다. 그동안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빌드업 축구로 나선 강원은 내용은 좋지 않더라도 가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활동량이 많고 압박 능력이 좋은 최병찬과 고영준을 최전방에 배치해 공수 전환에 속도감을 더하고, 중장거리 패스에 의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 등이 주요하면서 내용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으로서의 김대원이 깨어난 게 무엇보다 반갑다. 6라운드까지 공격포인트 하나 없던 김대원은 9라운드 김천 상무전(3-0 승)에서 2골 1도움으로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하는 등 최근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3골 2도움)를 올리며 강원 상승세의 중심에 섰다.

글: 서진-연합뉴스



안세영이 12일 중국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15점제 된다고?... 안세영 불리해질라

배드민턴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15점제' 도입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회원국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점수 체제 도입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세계 배드민턴은

2006년 21점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은 매 게임 15점을 먼저 얻는 쪽이 승리하는 구조다. BWF는 앞서 2018년과 2021년 '11점 5판 3승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 모두 가결 정족수인 찬성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15점제는 기존 11점제의 절충안 성격으로, BWF가 제도 개편을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BWF가 내세운 명분은 선수 보호와 운영 효율성이다. 연간 30여 개의 월드투어와 세계선수권 등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경기 시

세계연맹, 26일 채택여부 최종 확정 뒷심 강한 安 등韓 대표팀 대책 고심

간을 단축해 중계 편의성을 높여줬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 미칠 과장이 관건이다. 게임당 점수가 6점이나 줄어들면 경기 템포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초반 기싸움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과 남자 복식 1위 서승재-김원호 조 등 우리 대표팀 주역들은 탄탄한 체력을 바탕으로 후반에 승기를 잡는 '뒷심'에 강점이 있다.

점수가 줄어들면 특유의 끈질긴 랠리로 상대를 압박할 시간이 부족해져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러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실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 박지수 빠져도 무적

삼성과 챔프 1차전서 69대 56 승차 부상 공백 말끔히 메워 안도 원맨팀 아닌 원팀으로 진화 중

그런 기사를 읽고 싶지 않아 더 이를 악물고 간절하게 뛰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즌 초반 지수 언니 없이 준비했던 기억을 되살렸고, (승)윤하 언니랑 강이슬 언니가 끝에서 헌신해준 덕분에 마음 놓고 슛을 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여자프로농구 청주 KB의 '기둥' 박지수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앞두고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을 때, 안팎의 우려는 깊었다.

공수 양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그의 공백을 메꾸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오죽하면 KB 김원수 감독조차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아주 잘해줘야 '박방'일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였다.

하에은이 '간절함'을 동력으로 삼았다면, 강이슬은 '자신감'으로 무장했다.

강이슬은 "우리 수비 조직력이 좋아졌고 선수들도 한 단계 성장했다는 확신이 있다"며 "경기 전 선수들에게 '나는 자신 있고 빨리 경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기대가 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가우에 불과했다. 박지수와 함께 '허강박' 트리오를 구축해 온 하에은과 강이슬은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우며 KB가 '박지수 원맨팀'이 아닌 '원팀'임을 톡톡히 보여줬다.

KB는 22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용인 삼성생명과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하에은과 강이슬의 맹활약을 앞세워 69-56으로 완승했다.

그러면서 "최근 슛감이 워낙 좋아 던지면 다 들어갈 것 같았다.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에 후반 들어서 는 정확도보다 적극성에 집중하며 슛을 던졌다"고 덧붙혔다.

이날 KB는 2쿼터부터 강력한 기동력



을 앞세운 압박 수비로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었다. 1차전 승리로 73.5%의 우승 확률을 선점한 KB는 이제 통산 세 번째 통합 우승을 정조준한다. 하에은, 연합뉴스

인한서 플러스

관절영양제의 혁명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